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3월 26일 (제891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 우 컬 럼

절박한 심정으로

“제비 같이, 학 같이 지저귀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 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아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사38:14). 이것은 히스기야의 기도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곧 죽으리라는 통보를 받은 직후에 그의 절박했던 심정이 그대로 묘사되어 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소서”(출32:32). 이것은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절박한 기도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삼상1:10). 무자한 연고로 브닌나에게 조롱을 당한 한나가 비통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대목이다.

왜 기도하는데도 응답을 못 받을까? 문제가 있으면 원인도 있는 법, 절박한 기도, 비통한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절박한 기도예 응답하사 목숨을 연장해주셨고, 모세의 절박한 기도예 한 번 뱉은 말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으며, 한나의 비통한 기도예 하나님은 사무엘 같은 아들을 주셨다.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사오니 이 나라에 평화통일을 주소서.” 요즘 내가 자주 하는 기도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나라를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린 나의 기도다. 나는 분명히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이 땅에 평화가 올 줄 믿는다.

절박함이 있어야 한다. 비통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진솔한 기도가 나온다. 군더더기 없는 기도, 과장되고 가증되지 않는 기도가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만사형통의 복이 온다. 하나님을 어떻게 감동시킬까? 하같이 “하나님, 내 아들 죽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하며 방성대곡 할 때 옆에서 샘이 터진 것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되어 당신의 기도예 응답하실 것이다.

승리하려면 구조조정(構造調整) 하라

먼 옛날, 지구 생태계를 호령하던 거대 공룡들이 급작스런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된 역사가 있다. 그 큰 몸집이 오히려 재앙이 된 것이다.

어디 동물뿐인가. 세계사에 족적을 남긴 대제국들이 멸망한 원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심지어 미물들까지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다. 불어난 군살들을 제때 관리하지 못하면 변화되는 환경예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업들이 IMF 구제금융 시절, 대마불사를 호언하며 변화하는 시장에 적응

해서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를 대항하는데 단 300명의 용사만을 필요로 하셨다. 기드온 장군의 명령예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최정예 병사만을 모집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군대의 철저한 구조조정을 명령하시고 그 300용사를 통해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궤멸시키셨다(사사기 7장).

구조조정에 실패했던 인물이 누구인가? 사울왕은 아말렉의 남녀노소, 쫓먹이, 우양, 나귀까지 아껴보지 말고 모두 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기름진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14:25~27).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마 5:29~30)고 천국을 향해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철저한 영적 구조조정을 명령하셨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다
(시119:105)

하지 못하다 공중 분해되는 사건들이 이어졌다. 당시 우량계열사들을 처분하며 재빠르게 몸집을 줄이고 철저한 구조조정에 성공한 기업들만이 살아남았다. 시장의 무한경쟁체제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태도는 오늘이 어제와 같고, 내일이 오늘과 같을 것이라는 안이함이다. 지금 난과될 위기라면 아무리 귀한 보물 상자라도 모두 바다에 던져버리고 살아남아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항상 변화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곧 시대정신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시대는 변화했건만 구시대적 발상으로 어찌됐단 말인가. 예전에 통했던 방법이 오늘도, 내일도 통하리란 생각은 정말 안이하고 어리석다.

성경예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

우양과 금은보화를 아끼다가 왕 자리를 빼앗겼을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독수리에 뜯기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다.

천하장사 삼손은 어떠한가? 그의 실패의 원인은 들릴라를 구조조정하지 못한 결과다. 천하제일의 용맹이 있었으나 한 여인을 끊어내지 못해 멸망하고 말았다. 천관녀를 끊어내기 위해 말의 목을 가차없이 쳐냈던 김유신의 결단, 그의 성공적인 구조조정이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룬 초석 아니었던가.

예수님께서는 그를 따르려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구조조정을 명하신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우리의 궁극적 목적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약속된 상급을 받고 하늘의 왕권을 누리는 것일진대, 이에 조금이라도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철저하게 털어내고 가는 것이 지혜다.

법(法)의 한자를 살펴보면 물 수(水)에 갈 거(去)로 이루어져있다. 곧 법이란 도도한 물의 흐름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거스르는 행위는 다 쓸려 내려갈 뿐이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자, 지옥으로 미끄러져갈 뿐이다. 어디 하늘나라 법뿐인가. 작금의 사건으로도 충분히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내 삶의 어떠한 저해요소든 철저히 제거하는 구조조정만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승리하는 길임을 명심하자.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춘계산상집회

3월 27(월)~ 30일(목), 장성예수중심기도원
문의: 02-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요일3:1~8)

전쟁에는 절대 2등이 없다

전쟁에 2등은 없습니다. 오직 승자와 패자가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벧후2:19).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구약에는 실질적인 전쟁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잘 읽어보면 전쟁에서 패배한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치욕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36년간의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극적이었는지.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전쟁입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엡6:12).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악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인 귀신들이 우리의 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우리의 대적 마귀의 일을 진멸하려고 오신 것입니다(요일3:8). 마귀의 일이 뭐니까?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 원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 분열되게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게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욥의 아내가 계속적인 재앙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욥2:9)고 한 것은 욥의 아내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 그런 마귀와 그의 일꾼인 귀신들을 대적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 하여지리라 하라”(눅13:32)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전쟁에는 왕도가 없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합니다. 되레 그것들과 타협을 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과 타협이 됩니까? 타협이란 일종의 약속인데 그들이 약속을 지킵니까? 어느 순간 되면 우리 뒤통수를 치지 않습니까? 하물며 마귀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다 뒤통수만 맞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타협했느냐 물으시겠지요? 혹시 이런 경우 없었습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든지 “이 병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깨달으라고.” 라든지 “가난하게 살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등등이요. 여러분, 이건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습

니다. 가난하게 하지도 않고, 더욱이 우리를 병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마7:9~11). 이것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인데요, 세상의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은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부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를 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병에서 해방시키시려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갈고리가 달린 채찍으로 수없이 맞게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원하실까요? 병들고 저주 속에 갇혀 있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그 소리를 들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줄 압니까? 마귀입니다. 얼찌구나 할 겁니다. “그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계속 지지리 궁상떨며 살고, 죄악 속에 살고, 병들어서 사람 구실 못하고 살아라.” 할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타협이란 없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는 것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아니라 “감기까지 귀신이겠어?” 이런 것도 타협입니다. 당연히 감기도 귀신이지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이 가서 이긴 “귀신이 아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일어나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막1). 사업이 안 됩니까? “다들 불황이래.” 라고 말하지 마세요. 귀신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다에 나갔을 때 광풍이 일

자 제자들이 잠이 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잠잠 하라, 고요하라.”고 하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막4). 바람과 파도는 무인격체이지만, 그것을 조정하는 분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 귀신인 거예요?” 라고 물으시면, 제답은 “네, 그렇습니다.”입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와 고통 속에 있게 하는 것은 다 귀신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요8:44). 그러니 무조건 그것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것들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대적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켜지면 도둑들은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들을 내쫓으려면 영혼에 불이 켜지면 됩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절대 마귀가 엄습하지 못합니다.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면 어두움의 주관자는 쫓겨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과 저주와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때문입니다(살전5:19).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엡6:13)고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잘 들지요.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가진 자와 총알이 없는 빈 총을 가진 자와 같다고요. 똑같이 총을 들고 있으나 총알이 들어있는 총을 가진

자는 위험에 처하면 총을 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빈총이라면 불안하겠죠. 결국 위험하는 것들에게 사로잡히거나 죽임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을 소유한 자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과 귀신을 쫓아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총을 쏘면 총알이 나가 나를 해치려는 것들을 죽이듯,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그 예수 이름이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요14:16).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난다

그렇다면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은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행2:38). 그런데 문제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도 하루 종일 켜면 배터리가 다 나가지요? 그래서 수시로 충전시킵니다. 기도로 충전해야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귀신을 쫓고 습관 따라 밤에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배터리가 나간 휴대폰이 쓰레기에 불과하듯, 성령이 소멸된 성도는 그냥 사람에게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건 귀신 아니야.” 이런 소리나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귀신의 밤이 되어 되는 꼴이 없고, 매일 그 밤에 그 반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전쟁에는 2등이란 없습니다. 승자와 패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악한 마귀에게 지지 않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으십시오. 그래서 금세와 내세에 평안과 축복된 삶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당신도 세계를
복음화 할 수 있다!**

ARS 060-700-0688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 객원컬럼 ::

:: 거저씨만한 믿음 ::

장기투자자

장기투자자는 은퇴 후 노후대책이나 혹은 후손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주식을 사놓습니다. 주식의 시세변화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장기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자금은 그대로 주식 속에 남아있으며, 불황이 와도 주식을 줄이려는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장기투자자들에게는 소위 불투잡이라고 하는 대형우량주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단기 투자자는 장기적으로는 항상 잃는 경우가 많은 반면, 장기투자자는 언제 투자를 시작했든 장기적으로 이익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하락하고 나면 항상 새로운 상승 기록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투자자가 적은 액수의 돈으로 짧은 시간 내에 백만장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워렌버핏은 장기투자자로 미국에서 두 번째 가는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수익을 재투자하면서 복리효과를 통해 자동적으로 가치증식이 이루어집니다. 즉 장기투자는 모든 주식거래 중 최고의 결과를 낳는 방법입니다. 투자자 코스트라니도 ‘주식은 머리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번다’고 했으며 ‘투자에서 얻은 돈은 인내를 통한 고통의 대가, 즉 고통의 결과이다’라고 했습니다. 투자자는 큰 시세 변동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어떤 때는 몇 년을 보고 투자하며 자신의 생각이 옳았음이 입증되기를 기다립니다. 올바른 전제에서 출발한다면 모든 것은 시간문제이며 투

자는 성공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주식투자자에게는 사이사이의 폭풍과 악천후를 견뎌낼 수 있는 인내와 주관이 모자라, 시세가 떨어지면 그들은 심리적 혼란에 빠져 주식을 팔아 치운다고 했습니다. 한편 돈이 없거나 혹은 빛이 있다면 투자자는 인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렇듯 시장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나타나고 시세가 그의 예측과 다르게 변동하면, 그는 바로 포지션을 바꿀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시장이 그에게 유리하게 전개된다 해도 그 때까지 인내할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력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자는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이어지는 마라톤과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때때로 시련이나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약1:14)라고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믿음의 분량 그 이상을 생각하는 것이 욕심이며, 욕심과 소망은 다르다고 하셨습니다. 소망은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며 믿음 있는 자라야 소망을 갖고 인내할 수 있다고 하셨지요. 욕심 있는 자가 조급하며 과욕은 결국 화를 부르게 됩니다.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잠28:25)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갖되 절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미경**
lmkwdf@hotmail.com

:: 성경에세이 ::

자유의를 주신 하나님

아들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큰 선물을 주셨다. 너도 알다시피 자유의지란 자신의 행동과 의사 결정을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하지 않아도 되는 의지를 주신 거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창2:16~17). 이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 경고하신 말씀이며, 자유의지에 관한 첫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 여기서 ‘임의로 먹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음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에 대해 경고는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셨지.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란단다. 창세기 4장에 동생 아벨에 분노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찌니라”(창4:7)고 하신 말씀도 자유의지의 색이 짙게 묻어있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니까. 그러기에 이 때도 하나님은 경고는 하셨지만, 말리지는

않으신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 방관하시는 걸까? 절대 그건 아니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인격체로 인정하신다는 뜻이고, 더불어 결과에 대한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란다. 갓난아이는 뭐든 울어서 해결하지. 울까, 말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란단다. 즉 이성적으로 성장한 자에게 자유의지가 발동되는 것이니 책임도 마땅히 따르는 것이 아니겠니?
아들아!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이 집 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지만, 그가 아버지 집으로 스스로 왔을 때 기뻐 잔치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기뻐 잔치를 베푸시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은혜를 내리신단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함을 잊지 마라.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2:16).

봉우

믿음은 보인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을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 마음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 마음 자체는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들고 만져지지 않는 것들을 만지게 만들어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랑과 행복, 깊은 유대와 우정, 믿음은 물질적인 실체가 없음에도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눈 맞춤, 어린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 아버지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것과도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도 이따금씩 스스로의 실재를 증명한다. 마음의 느낌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오기 때문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전들이 이로

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히11:1~3).
우리의 믿음은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얼마 전 총회장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다. ‘믿음도 눈에 보인다’고. 믿음이 있는 자의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삶이 다르다고 하셨다. 목사님의 말씀이 옳다. 성경을 다시 뒤져보니 믿음은 보이지 않은 듯 하나 믿음 있는 자의 말은 긍정적이었고, 믿음 있는 자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었고, 믿음 있는 자의 삶에는 지금은 미약하나 나중의 창대함이 있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세상에 믿음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하겠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 생명의 말씀 ::

명(名)성도란?

캐나다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저녁기도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배가 출출해서 라면을 끓여먹고자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라면봉지에 적혀 있는 조리방법을 읽게 됐다. 물이 끓으면 라면을 넣고 끓은 다음 스프를 넣어 기호에 따라 파, 계란을 넣어먹으면 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그 방법대로 조리를 하고 식탁에 앉아 라면을 맛있게 먹던 중 성령의 음성에 깜짝 놀라 라면을 먹다말고 손바닥으로 무릎을 쳤다. 성령의 음성은 이랬다. ‘라면 봉지에 기록된 것도 믿고 끓이니 맛있는 요리가 되건만 하물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니?’ 그 후로 나는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기로 결심했다.
최고의 명마는 아라비아산 말이다. 몸값이 20~30억이다. 이렇게 대접받는 명마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어떤 사람이 말을 100마리를 샀다. 그는 이 말들을 우리에게 가두어 놓고 며칠간 먹을 것만 주고 물은 주지 않았다. 얼마나 갈증이 났겠는가. 그러다 주인이 갑자기 문을 열어주니 목이 마른 말들이 시냇가로 달려갔다. 달려가는 말들을 향

해 주인은 피리를 불어 다시 돌아오게 했다. 주인의 피리소리에 100마리 중 4마리만 돌아왔다. 이 4마리를 구별해서 새끼를 낳게 하고 번식시킨 말이 아라비아산 말이다.
명마(名馬)는 잘 달리는 말이 아니라 갈증으로 인해 죽을 지경이래도 주인의 피리 소리에 멈추고 돌아오는 말이다. 명견(名犬)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 먹는 개다.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해야 명마요, 명견이듯,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성도가 ‘명(名)성도’라고 할 수 있다.
노아는 방주를 산 위에 만들라 할 때 명하신대로 준행해 제2의 인류조상이 됐으며,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라 명하실 때 복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됐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전보다 더 좋은 포도주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요2:5). 하나님은 축복도, 기적도 순종이란 레일을 타고 가져다주신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3인의 법칙

‘3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어떠한 상황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3명만 모이면 다수의 대중도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회심리학 용어입니다. 실제로 얼마 전 지하철역에서 한 행객이 지하철과 승강장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 한 남성이 큰소리로 “사람이 끼였습니다! 지하철을 옆으로 밀고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혼자 지하철을 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역을 지나던 수많은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쳐다만 볼뿐이었습니다. 그 큰 지하철을 밀어봤자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1명, 그리고 또 1명, 총 3명이 지하철을 밀자 갑자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함께 지하철을 밀었고, 결국 그 큰 지하철이 옆으로 밀리며 부상자를 무사히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앙에서도 ‘3인의 법칙’은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구해야 할 영혼, 혹은 맡겨주신 사명을 발견하면 함께 할 동역자를 찾아 과감히 소리쳐야 합니다. 이때 주변에서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는다고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만 보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꿋꿋이 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뜻을 함께 할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그 모습을 보고 다수의 사람들이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할 것이며, 마침내 넘지 못할 산도 아예 옮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먼저 자신

과 함께할 동역자, 즉 12제자를 부르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촌과 성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영혼들을 발견하시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더불어 자신이 하였던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시키셨고, 이후 제자들이 여러 동네에 퍼져 예수님과 같은 권능과 가르침을 전하자 마침내 그 소식은 온 예루살렘과 옥에 갇혀있던 요한의 귀에 들릴 정도로 이스라엘에 두루 전파되었습니다.

바울 역시 이방인 전도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뤄내기 위해 수많은 동역자를 구하고 얻고 함께했습니다. 바울의 개종을 아무도 믿지 않고 멀리할 때 바울을 용납케 도와주고 이끌어준 바나바를 비롯해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숨까지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등 수많은 동역자와 함께였기에 신약시대, 손에 꼽는 위대한 전도자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화통일 기도성회 역시 처음은 목사님 한 분의 외침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 뜻으로 2번째, 3번째 동역자가 되어 함께 기도로 하나님을 움직이고, 마침내 전쟁 없는 평화로운 통일을 이뤄내고야 말 것입니다.

하인명

renming@daum.net

비틀어진 몸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 은혜로 95년 4월 14일 서울전도집회 마지막 날 금요일 야에 왔습니다. 꿈에 흰 양복을 입으신 목사님 모습과 체육관 예배당 모습을 보여주시고 3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와서 보니 꿈에 보여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한 사람 없는 교회로 와서 총회장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만 오면 항상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4년 전 얘기를 보던 중, 제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서 병원에 가서 치료는 받았는데 그것이 더 잘못되어서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치료가 되지 않고 허리는 점점 틀어지고 배는 꼬부라져 걸을 수가 없어 다섯 걸음만 걸어도 땀바닥에 주저앉아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의 비웃음도 많이 받고 현금 위원봉사도 못하게 되니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오고,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괴로움과 고통이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산다는 것이 절망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

께서 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2017년 1월 3일, 8차 평화통일 기도성회 때 총회장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모든 병은 다 고침 받으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셔서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눈물이 펄펄 쏟아지고 몸에서는 땀이 비 오듯 하고 열병을 앓는 듯 하더니 성령께서 기도를 시키시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배창자는 끊어지듯 하고, 목에서는 피가 터지는 듯 하며 밤새도록 기도를 하게 하시니 온 몸이 눈물, 콧물,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씻고 옷을 입으려는데 누군가 제 등에다 쇠꼬챙이를 딱 반쳐놓은 듯이 허리에 힘이 생기고 꼬부라졌던 배가 펴져서 일어섰습니다. 그 때 성령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네 병 고쳤다.’ 하셨습니다. 내 병 고쳤다는 음성을 듣고 미친 듯이 뛰어봤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4년 동안 비틀어져 펴 수 없었던 허리가 고쳐졌고, 꼬부라졌던 배가 펴져서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목사님의 기도로 4년 동안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병을 다 고침 받았습니다. 다시 현금위원봉사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 간증이 전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천교구 이복순 권사

☞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다
예배와 제사는 하나 될 수 없다

Light and darkness cannot coexist, likewise, worshipping service to God and giving a memorial ceremony to ancestors cannot be one.
光明和黑暗不能共存, 礼拜和祭祀也不能合而为一。

:: Global Study ::

☞ 이는 한 여자가 두 남자를 섬김과 같은 것이다

It is like a woman who has intimacy with two men at the same time.
这就像一个女人服侍两个男人一样。

:: 생활 속의 잠언 ::

꿈은 이루어진다!

2014년도 서울시청광장 평화통일 기도성회를 앞 둔 어느 날, 문서 선교팀들이 이태원에서 외국인 상대로 전도를 한다고 나오라고 하셔서 별생각 없이 나갔습니다. 20년을 영어강사로 살아온 사람인데 까짓 못할 일이 뭣이 있겠냐는 가벼운 마음이었다.

지나가는 외국인들에 다가가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서울시청광장으로 나오세요!” 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 머리의 언어회로가 꼬이기 시작했고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몇 시간을 쭈뼛거리면서 전도를 했지만 아니다 싶은 생각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것은 물론이고 도대체 어이없는 사태를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조차 없었다. 집회가 끝난 후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찾은 방법은 미국인과의 전화회화수업이었다. 레벨 테스트의 결과는 4등급이었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지만, 일주일에 두 번, 하루 20분씩 수업을 시작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걸려오는 전화 속 외국

인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느라고 단 심분의 대화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날의 대화 주제를 미리 읽어 보기도 하면서 차츰 적응해나가기 시작했다. 지금은 화, 목요일 오후 4시면 즐거운 마음으로 미국 위스콘신에서 걸려올 Amee의 전화를 기다린다. 처음과 달리 이제는 회화 선생 Amee와 수다도 떨고 그날의 주제를 나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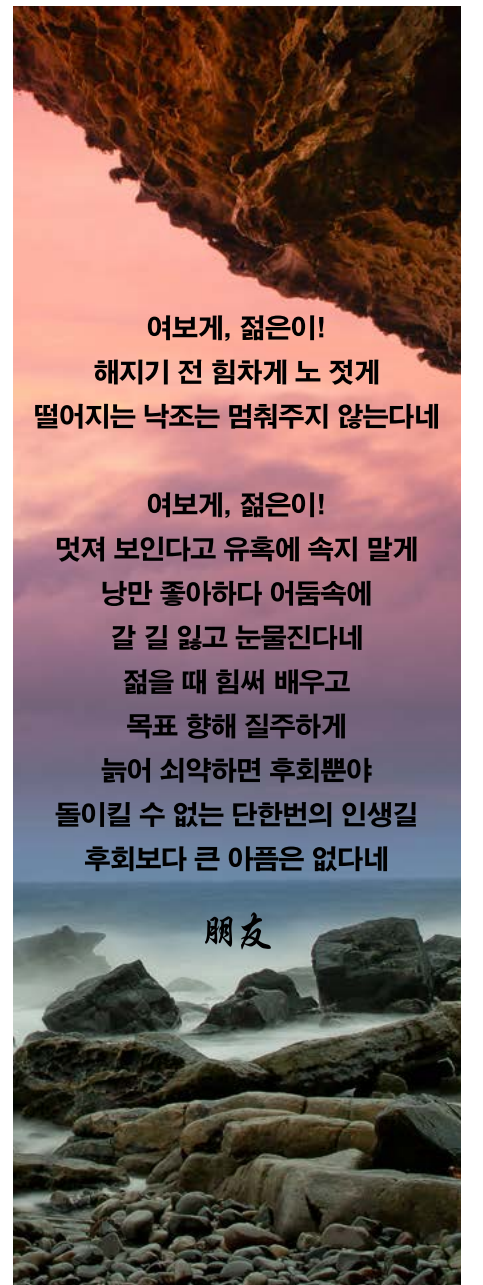
영어수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기회가 된다면 미국을 횡단하는 여행을 꿈꾸어왔었고, 학창시절 최고의 로망이었던 로버트 레드포드(미국 영화배우)를 직접 만나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왔다. 미국 L.A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대륙 횡단의 꿈을 이야기 한 적이 있었다. 그 친구는 일단 대륙을 횡단하기 전에 사전답사를 하고 어떻게 대륙을 횡단할 건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라며 나를 그곳으로 초대하였다. 그래서 내일이면 꿈을 이룰 첫 발

을 내딛기 위해 미국으로 출발한다. 이제 미국에 가면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미국의 하나님과 한국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음과 만유의 주 하나님이 한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주님께 영광이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다. 우물 안의 삶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중심으로 달려가야 할 때이다. 나이를 생각하고 성별을 생각하고 처지를 생각하면 평생 한국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앞으로 2년 후, 미국 서부에서 동부까지 혼자 힘으로,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의 마음으로 20년간 꿈꿔온 것을 이뤄보려고 한다. 도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 자유를 향한 열망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다 보면, 문득 어느 날 사모하는 주님을 뵈 수 있는 천국에 이를 것이라 확신한다. 나의 발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자유

lovelyactor@naver.com



여보게, 젊은이!
해지기 전 힘차게 노 젓게
떨어지는 낙조는 멈춰주지 않는다네

여보게, 젊은이!
멋져 보인다고 유혹에 속지 말게
낭만 좋아하다 어둠속에
갈 길 잃고 눈물진다네
젊을 때 힘써 배우고
목표 향해 질주하게
늙어 쇠약하면 후회뿐야
돌이킬 수 없는 단한번의 인생길
후회보다 큰 아픔은 없다네

朋友